

## 최나연, 메이저 퀸 도전

US오픈 1R 3언더 단독선두

한국 남자군 4명 '톱 10'

신지애는 1오버 공동 12위



최나연이 1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주) 베슬리힐의 사우컨밸리 컨트리 클럽에서 벌어진 US 여자 오픈 골프 토너먼트 1라운드 중 17번홀에서 자신의 티샷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군단이 최나연(22,SK텔레콤)을 앞세워 최고 권위의 메이저대회 왕관 사냥에 나섰다.

최나연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베슬리힐의 사우컨밸리 골프장 올드코스(파71·6천740야드)에서 열린 US여자오픈골프대회 1라운드에서 빠르고 경사가 심한 그린을 잘 공략하며 3언더파 68타를 적어냈다.

베테랑 크리스티 커(미국)와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무명의 진 레이날즈(미국·2언더파 69타)를 1타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오른 최나연은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일취월 발판을 마련했다.

2008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최나연은 그해 27개 대회에 출전, 모두 컷을 통과하며 준수수준도 두차례나 차지했지만 우승컵은 가져오지 못했다. 올해도 10개 대회에서 모두 컷을 통과하며 톱10에 세차례 진입하는 등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 최나연은 1라운드에서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타수를 줄여 나가는 집중력을 자랑했다.

전반에만 3타를 줄인 최나연은 2번홀(파4) 버디에 이어 대회 코스 중 가장 어렵다는 3번홀(파4)에서도 1타를 줄여 5언더파를 만들었지만 5번홀(파4)과 6번홀(파5) 연속 보기가 아쉬웠다. 최나연은 5번홀에서 티샷과 두번째 샷을 모두 벅커에 빠뜨리면서 파세이브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6번홀에서도 파퍼트가 빛나면서 1타를 잃어 컷과 오초아에 추격의 발미를 주고 말았다.

하지만 한국군단의 장점은 누구나 우승할 수 있는 두터운 선수층이다. 최나연과 함께

LPGA 투어에 진출한 박희영(22·하나금융)은 1언더파 70타를 치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희영은 16번홀까지 3타를 줄였지만 17번홀(파3)에서 나온 더블보기가 발목을 잡았다.

10번홀에서 출발한 신지애는 그린을 10차

레나 놓쳤고 연속 버디 뒤 연속 보기를 적어내는 등 기록이 심했다. 3번홀에서 두번째 샷을 몰에 빠뜨려 2타를 잃기도 했던 신지애는 8번홀(파4)에서 버디로 만회하면서 1오버파 72타를 쳐 공동 12위에서 첫날을 마쳤다. /연합뉴스

75의 기록으로 5위에 머물렀다.

한국선수단은 유도 왕기춘(용인대)이 73kg급 이하에서 금메달을 땀을 뻘, 모든 종목에서 부진해 종합순위에서 일본에 밀려 3위로 한계단 하락했다.

한국선수단은 이날 현재 금메달 12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0개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아드 대회 남자 세단뛰기 결선에서 자신의 최고기록(17m10)에 한참 미치지 못한 16m

## 유도 왕기춘 금빛 메치기

하계 U대회...세단뛰기 김덕현 5위 그쳐

도약종목의 간판 김덕현(광주시청)이 10일 열린 제 25회 베오그라드 하계 유니버시

## 광주, 포항 상승세 꺾어주마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불사조' 광주 상무가 '용광로' 포항 스틸러스를 만났다.

광주는 11일 오후 7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파죽지세의 포항과 프로축구 2009 K-리그 15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K-리그 그라운드 돌풍을 일으킨 광주는 9승2무3패(승점 29)로 1위 자리를 지킨 채 반환점을 돌았다. 한 경기를 덜 치른 포항은 4승7무2패(승점 19)로 6위에 올라 선두권 도약을 노린다.

광주는 지난 4일 전북 현대와 홈 경기에서 이동국에게 헤트트릭을 허용하며 2-3 역전패를 당했지만 지난달 말 울산 현대(2-1 승), 성남 일화(1-0 승) 등 강호들과 잇달아 격돌하면서도 승수를 쌓아 선두자리를 지켜냈다.

역시 광주는 정규리그에서 나란히 7골을 터트린 공격수 최성국과 김명중에게 기대를 건다. 특히 올해 말 제대 후 복귀해야 할 친정팀 포항에 창끝을 겨누는 김명중은 지난 전북과 경기에서 무릎을 다쳐 후반 28분 교체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 기습을 끌어내렸다.

프로축구 15R 오늘 포항 빅뱅

최성국·김명중 골 사냥 기대

광주 관계자는 "김명중의 포항 경기 출전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항은 역대 광주와 맞대결에서 최근 5경기 연속 무패행진(4승1무)을 벌이는 등 15승4무1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12번(10승2무)을 싸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 포항의 기세는 아주 무섭다. 개막전 승리 뒤 7무2패의 슬럼프에 빠졌던 포항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연전 일정으로 3주간 휴식에 들어갔던 K-리그가 재개된 뒤로는 적수가 없었다. /연합뉴스

## 새끼호랑이 안치홍 '킬러 본능'

두자릿수 홈런에 도루도 8개...신인왕 경쟁 가세

"편지력이 대단한 타자입니다. 타격 때 타리를 돌리며 힘을 쓰는 능력이 탁월하지요." 황병일 KIA 타격코치가 이처럼 입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선수는 신인 안치홍(19)이다. 안치홍은 팀 타율(0.257)이 꼴찌로 처진 KIA에서 신인답지 않은 강력한 편지력을 보이며 활력소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벌써 홈런을 12개나 날렸다. 8일 LG와 광주경기에서 3회 역전 2점 홈런을 쏘아 올렸

고, 2일 삼성과 난타전 끝에 14-9로 이길 때는 7, 8회 연타석 홈런을 때려 팀 승리에 이바지했다.

국내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에이스들도 안치홍의 '강판치'를 피하지 못했다. 한화 류현진(7월4일), SK 송은범(5월26일), 김광현(5월17일) 등이 홈런을 얻어맞았다.

고졸이 프로 입단 첫해에 두자릿수 홈런을 날린 것도 이례적이다. 2001년 김태균(한화, 20개)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안치홍은

또 도루도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8개를 성공시켰다. 타격이 정교한 편은 아니지만 최근 1번 타자로 발탁된 것은 이런 이유가 고려됐다.

뛰어난 활약을 보이자 인기도 치솟고 있다. KIA의 두터운 팬층 덕분에 올스타 인기 투표에서 프로야구 최고 스타 김현수(62만8천856표)에 이어 당당히 2위(58만5천74표)를 달리고 있다. 웨스턴 리그 2루수 부문에서는 2위 히어로즈 김민우에 38만2천844표라는 큰 차로 앞섰다.

아울러 안치홍은 신인왕 경쟁에도 명함을 내밀었다. 최고 마무리로 거둔 이윤찬(2패 18세이브), 행운이 따라다니는 홍삼삼(7승2패, 이상 두산)과 한 치도 양보없는 싸움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 환축

▲박규선·유근자씨 장남 홍진군 이동희(진월초 교장)·나현옥씨 장녀 보라양=11일(토) 오후 1시 서울 건설회관 2층 웨딩홀.  
 ▲정형도(전 조대부교 교사)씨 차남 용중(사법연수원생)군 서정범(아남전자)씨 장녀 미혜(서울 학원강사)양=11일(토) 오후 5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호텔.

### 무음

▲강준희씨 별세 영채·선재씨 부친상

= 발인 12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박중희씨 별세 경수·향수·근수씨 부친상=발인 11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송예씨 별세 이경훈(오성산업회장)·정훈(자영업)·양섭(자영업)씨 모친상 김재훈(전 전남일보 부장)씨 빙모상=발인 11일(토) 서울 순천향병원 영안실 8호실. 010-8786-0080.

▲김수씨 별세 이연의(대서티건설이사)씨 모친상 김복원(전 국민은행 부행장·솔로몬신용정보 사장)씨 빙모상=발인 11일(토)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양원승씨 별세 김동년·동자·동숙·동직·관택·광익·광재씨 모친상=발인 11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대한민국 종합일간지

#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 02-3779-8008

### RADIO

11:00~12:00

12:00~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7:00

7:00~8:00

8:00~9:00

9:00~10:00

10:00~11:00

가톨릭교황님, 천국으로 가십시오

CBS 뉴스센터

060-600-1031